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성과 공유

전북자치도·도 경제통상진흥원, ‘육성체계 밋업’ 개최... 10개 기업에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9일 전주 아름다운웨딩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돌움·도약기업) 육성체계 밋업(Meet-Up)’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업을 격려하는 동시에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성장 동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돌움·도약기업 대표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고려해 R&D, 기술에 이어 마케팅, 레밸업 패키지(자율지원), ESG 경영개선, 투자유치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맞춤형 성장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가릴형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1부 행사에서는 넷제로홀딩스그룹 박희원 대표가 ‘탄소·ESG 규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9일 전주 아름다운웨딩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돌움·도약기업) 육성체계 밋업(Meet-Up)’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 해 동안의 지원사업 주요 성과가 발표됐으며, 지리산처럼(영)을 포함한 10개 기업이 혁

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경진원에 따르면 성장사다리 지원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돌움기업 59개사·도약기업 45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2025년 실적은 2024년 대비 돌움기업의 매출

이 7.0%, 고용이 12.7% 증가했고, 도약기업은 매출 7.4%, 고용 3.0%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 지정된 (주)에드아이엠은 제조 현장 데이터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지능형 엣지 디바이스 전문기업으로, 공구 불성 데이터 학습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며 돌움기업 선정 이전인 2022년 대비 2024년 매출이 233% 급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사례 역시 행사에서 공유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윤여봉 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2026년 3월경 경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매출 1~10억 원 규모의 ‘돌움기업’, 10~50억 원 규모의 ‘도약기업’을 신규 모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노동 존중 기반 공공성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와 노동조합이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번 공동 선언에서 노사는 △상생 문화의 제도와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노동환경 구축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책임 실현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인 공공성과 안전성, 윤리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은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력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는 전기안전 업무의 핵심 가치가 ‘국민 생명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나눔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대출 지원 7300억원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침체된 내수경기과 고물가 등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지원을 7,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출 상품 다변화 △이자보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객 편의성 개선 △마케팅 강화 △자금 건전성 및 운용수익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년 국내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비대면 대출 확대, 신규 대출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약 1만7,500여 개의 기업이 가입해 있다. 2025년에도 약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며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전북개발공사가 한파로 인한 건설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주요 건설현장에서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익산 부송4지구 A블록, 전주 예코-17BL, 임실 오수·관촌 공공임대 등 총 6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방한두건, 방한장갑, 핫팩 등 겨울철 필수 방한용품 전달하며 작업 환경 개선에 힘썼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질환의 주요 증상, 응급 대응 요령, 한파 시 작업기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이를 통해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판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안전성분석실 내 중금속분석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에 선정됨에 따라, 10일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중금속분석실은 농산물과 농자재에 포함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 중금속을 정밀 분석하는 핵심 연구 공간이다. 이번 평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약 및 표준물질 보관, 장비 유지관리, 비상 대응체계, 안전 의식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연구실 내 잠재적 위험요인



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데 따른 성과로 의미가 크다.

이날 현판식에는 농관원 관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해 안전관리 실천 의지를 다지고, 연구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좌담회·조합원 교육 성황리 열려

전주농협이 지난 9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농협 좌담회 및 조합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약 1,500명이 참석해 농협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실감케 했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협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좌담회에서는 전주농협이 추진 중인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해 신용·경제사업 현안이 상세히 소개됐으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 내용이 공유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조합원 교육이 오랜만에 재개된 2부 프로



그램도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서는 농협 이용 방법부터 조합원의 권리·

혜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다뤄지며 조합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진후 조합원지원실장은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와 조합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